

경제

르포-불황 허덕이는 광주 충장로 5가 도매상가

무너진 골목상권 직격탄... 휴업점포 늘어

“소매상들 IMF때보다 주문 확 줄어”
가격 떨어져 가게 정리 못하고 버티

“시장상인, 영세상인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에 손님들 다 뺏기는데 동네 장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직원 없이 가족
끼리 일할 지 오래됐어요.”

장사하는 충장로 5가 도매상가가 급
속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찾아온 꽃샘추위로 인해
주말보다 적은 손님이 예상됐지만
후 2시가 넘어서도 여전히 충장로 도
매상을 찾는 소매상들의 발걸음은 뜸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도매상가 거리가 갑작스레 찾아온 꽃샘추위와 함께 고객들의 발걸음마저 뜸해 썰렁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엑세서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여·41)씨도 “예전에는 소매상인
들 뿐 아니라 짝 가격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찾았는데 대형마트에
손님을 뺏기고, 소상공 창업에 너나
없이 뛰어들면서 경쟁마저 치열해져
버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충장로 5가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
대부분이 가게를 정리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
점포 매매 가격이 충장로 5가 전성
기였던 90년대 초·중반에 비하면 최
소 절반 이상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충장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덕씨는 “화니백
화점이 있었던 시절에는 이 일대 땅
값은 평당 7000만~8000만원을 호가
했는데 지금은 700만~1200만원으로
떨어졌다”며 “빈 점포는 늘고 있지만
막상 사무실로 들어오는 매물이 없을
정도로 상권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
고 말했다.
현재 충장로 5가 도매상가 거리에는
1층에만 150여 곳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지만 ‘임대’를 붙여놓거나 영
업을 하지 않은 점포도 20여 곳에 달
한다.



광주전남 소상공인포럼 출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2일 오후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 대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소상공인포럼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출범식과 정책토론회에는 소상공인 50명, 지원기관, 지역 소상공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

뉴스 브리핑

광주·전남중기청 전통시장 34곳 6억 지원

광주 무등시장, 여수 수산물물
화시장 등 광주·전남·제주지역
전통시장 34곳이 정부 지원을 받
아 시장 활성화를 모색한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11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5
개 사업 지원 대상으로 광주·전
남, 제주지역 34개 시장을 선정해
모두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동마케팅사업에

는 광주 무등시장 등 17곳이 선정
됐다. 이들 시장은 세일·경품 행
사, 홍보, 공동쿠폰 발행 등을 통
해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를 추진
한다.
시장관광사업에는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등 3곳이 선정됐다.
또 송정매일시장 등 9곳은 고
객관리, 판매기법, 상품진열 등을
위한 상인대학을 운영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직자 희망 연봉
평균 2958만원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신입사원 연
봉은 평균 2958만원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구직자 1058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지원자들
의 희망 연봉이 평균 343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이 3114만원으
로 뒤를 이었다. 이어 외국계기업은
2891만원, 공기업은 2786만원, 중소
기업은 2560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기업으로는 ‘중견기업’을
뽑은 응답자가 2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기업’(27.6%), ‘중소
기업’(19.4%), ‘공기업’(12.9%), ‘외
국계기업’(10.3%) 순이었다. 중견기
업 지원자들은 그 이유로 ‘전공을 살
려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41.6%),
‘복지후생제도가 잘 돼 있을 것 같아
서’(35.9%), ‘연봉조건이 좋아서’(29.
8%)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제조업체 82% “기름값 올라 피해”

상의 305곳 조사...95% “별도 대응책 없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
곳 꼴로 피해를 봤다는 조사결과
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는 제조업체 305곳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피
해를 봤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81.6%(큰 피해 19.3%, 다소 피
해 62.3%)였다고 12일 밝혔다.
‘큰 피해를 봤다’는 응답은 대
기업(9.4%)보다 중소기업(23.
9%)에서 많이 나왔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복수응
답)으로는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50.2%),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자급난(39.8%), 제

품가격 인상으로 가격경쟁력 저
하(29.1%) 등이 꼽혔다.
실제 구매하거나 도입하는 유
류가격이 작년 연말보다 어느 정
도 상승했느냐는 물음에는 ‘10%
이하’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많았다. 응답기업 95.7%는 ‘국제
유가 상승에 별도의 대응책이 없
다’고 답했다. 올 상반기 국제유
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한 기
업은 73.5%에 달했다.
기업들은 국제유가 상승에 대
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복수응답)로 유류세
인하(57.4%), 정부 비축물량 공
급 확대(19.7%), 수입관세 인하
(17.7%)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주택청약 광역화 시행 이후
광주 광역권 신청자 5%대

정부가 지난달 말 주택청약 가능
지역을 도(道)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
청약 광역화 제도를 시행한 이후 광
주지역 아파트 청약에서 광역권 신청
자가 5%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주
택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
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광주지역에서는
광주 서구 주월동에 ‘봉선주월 광명
메이루즈’(337가구)와 광주 북구 신
용동 첨단2지구 ‘한양수자인’(1천221
가구) 등 2개 업체가 분양, 광역권 신
청자 비율이 5% 안팎을 기록했다.

봉선주월 메이루즈는 337가구 모
집에 2405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 7.1대 1을 기록했다.
전체 청약자 가운데 광역권 신청자
가 98명에 달해 전체 가구 대비 29.
1%, 전체 청약자 대비 4.1%의 비율
을 보였다.
또 1221가구를 모집하는 한양수자
인에는 모두 7850명이 신청, 평균 경쟁
률 6.4대 1을 기록했다.
나주 등 광역권 신청자가 401명에
달해 가구수 대비 32.8%, 청약자 대
비 5.1%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활기를 띠는 아파트 분
양 시장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 출퇴근에 유리한 관문지역 주
변의 아파트에 광역권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학생 세관 체험·FTA 설명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
은 오는 3월 15일 한미 FTA 발
효에 따른 지역내 FTA 전문가 양
성을 위해 12일 광주대학교 글로벌
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 학생 31
명에 세관 현장체험 및 FTA 설명
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실습교육은 FTA와
무역업무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들이 무역의 중심축인 세관의 통

관 현장 체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하고 FTA 활용능력을 함양
해 FTA전문인력으로 성장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지
역내 대학에 FTA 실무강의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무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합·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
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농산물 방사능 조사물량 1500건으로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
원)은 12일 농산물 방사능 조사
물량을 1500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436건의 3.4배 수준
이다.
조사대상 방사능 핵종은 요오
드와 방사성 세슘이다.
방사능은 방사성 물질의 원자
핵이 단위 시간당 붕괴되는 수를

의미하며, 방사능 강도를 측정하
는 단위로는 kg당 베크렐(Bq)을
사용한다.
조사 대상품목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쌀, 배추, 상추, 취나
물, 옥수수, 시금치 등 채소류이며,
방사능에 노출되기 쉬운 노지 재
배 농산물을 위주로 조사한다.
/연합뉴스

Table with 2 columns: Index and Value. Rows include 코스피지수 (2,002.50), 코스닥지수 (539.11), 금리 (3.47%), and 원·달러 환율 (1,124.00원).

Advertisement for Gukrakjeon Namgol-dang. Features text about ancestral rites, a photo of a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contact information: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Advertisement for Kangnam Industry solar panels. Features text: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a table of prices for different system sizes, and contact info: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